



나도 작가



나는 브런치 작가이다. 브런치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글을 쓰고 구독할 수 있는 블로그 플랫폼이다. 이곳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작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브런치 에디터팀이 심사를 통해 승인을 해주면 작가로 글을 발행할 수 있고 제삼자에게 내가 쓴 글을 보여줄 수 있다. 그리고 승인된 작가들은 책을 발간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작가로 거듭나는 기회도 얻을 수도 있다. 물론 작가로 승인이 되지 않아도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저장만 가능하고 발행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.

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브런치 플랫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의 포스팅을 보았다. 꽤 장문의 글이었지만 요약해보면 브런치는 서비스 초기에는 전문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콘텐츠 위주로 작가를 선정했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유용한 정보나 주옥같은 글들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.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일반인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전문성이 없는 육아, 여행, 맛집, 에세이, 자기 계발 분야로 주제가 몰렸고 너무 쉽게 작가 승인이 되면서 플랫폼 자체도 정체기에서 쇠퇴기를 맞이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.

이 글을 읽으며 나는 흠칫 놀랐다. 내가 바로 그 뒤늦게 입소문을 듣고 브런치에 가입한 일반인이었고 전문성 하나 없이 별 볼일 없는 내 이야기를 쓰는 브런치 선정 작가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.

2-3년 전부터 페이스북에 자주 브런치가 거론되었고 궁금한 마음에 시작했다가 나도 2020년 여름 작가로 승인이 되었다. 내가 글을 발행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도 제법 많이 브런치에 가입을 했으니 이만하면 브런치가 꽤 일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?

브런치 초창기에 얼마나 능력자들이 모여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 나 같은 사람도 있다. 나는 IT 트렌드, 스타트업 경험담, 직장인 현실 조언 등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전문적인 글들은 실수로라도 보는 일이 없고 당연히 절대로 구독하지 않는다. 오히려 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내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. 특히 나처럼 아이를 둔 엄마의 진솔한 이야기나 잔잔한 일상을 담은 수필들이 마음에 들면 구독 버튼을 누른다. 물론 그런 글들을 읽으며 취업을 앞둔 취준생이 대기업 입사 노하우 글을 읽듯이 두 눈을 반짝이지는 않을지도 모른다. 하지만 분명 나같이 잔잔한 감동과 공감을 느끼고 싶어서 브런치를 찾는 독자층도 꽤 많을 것이다.

글을 쓰고 읽는 플랫폼은 인터넷이 생겨난 이래 늘 우리 곁에 있었다. 나만해도 고등학교 때부터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꾸준히 글을 쓰고 공유해왔으니 말이다. 하지만 플랫폼의 수명은 제각각이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공들여 쓴 글들과 구독자, 댓글 등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재앙이 생길 수는 있다. 나도 이런 일이 몇 번씩 반복되었고 그나마 지금 사

용 중인 네이버 블로그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.

카카오의 브런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? 대기업이 하는 일인데 어렵히 알아서 하겠지...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정 그룹보다는 더 많은 대중을 끌어들이는 것이 결국 모든 기업이 원하는 일 아닌가?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제법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말이다. 이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 알겠지만... 그럼 또 이름만 바뀐 또 다른 플랫폼이 생겨날 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 나는 어디서든 글을 쓰고 있을 테니까.

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'나는야 1.5세 이주민'은 '재미교포1.5세 이주민'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주>



“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”
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.

“ 지금이 집을 파실 기회입니다.”

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

-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
-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
-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
-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
-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
-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
-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
- 08 후불제 페인트 Paint (pay when close escrow)

주택/ 상가/ 사업체/ 투자매물 전문
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

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.
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

※ 새집 분양,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,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.
※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,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.



아이비
VICE PRESIDENT
Member of NAR, CAR, PWR
CalDRE#: 02086695

LEAH IVY CHANG REALTOR
LeahChangRealty@gmail.com

714.904.1202

Buena Park: 6561 Beach blvd
Irvine: 8 Corporate Park #220

최근 판매한 매물들

780 W Rossslynn AVE FUL	\$950,000
8062 Ainsworth LN La Palma	\$1,350,000
5320 Buck Hill AVE Buena Park	\$2,000,000
11762 Lakeland RD Norwalk	\$740,000
120 Gemstone Irvine	\$1,385,000
11433 Excelsior DR #A NorWalk	\$600,000
5409 Arrowhead AVE Buena Park	\$900,000
988 Glendora Dr, Oceanside 92057	\$825,000
1661 Interlachen M11-286B Seal Beach	\$265,000
4559 Toledo WAY Buena Park	\$581,000

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”

3110 Cochise WAY #102 Fullerton	\$473,000
7770 Youngdale WAY #D Stanton	\$450,000
5087 Argyle DR Buena Park	\$500,000
1001 W Lambert RD #169 La Habra	\$210,000
629 Drake AVE Fullerton	\$893,000
6045 Barry DR Cypress	\$960,000
3143 W Lincoln AVE Anaheim	\$659,000
596 Escenico Lake Forest	\$1,085,000
2615 Tuscany WAY Fullerton	\$1,607,000
6495 Saipan ST Cypress	\$1,002,540